

# 본 협회 충남지부 창설 준비위원회 발족

—4월 3일 대전에서 창립총회 갖기로—



대한 양계협회 충남지부 창설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지난 3월 20일 충남 유성온천 별관에서 개최된 이날 발기위원회에서는 본회 송정택 전무를 비롯 오대균(국립종축장 대전지부장), 고태환(충남도 축정과장), 이현균(충남도 축산계장), 정홍기(충남 축정과 양계담당), 최민용(한국바브록(주) 대표이사), 나재춘(유성 형제부화장 대표), 이진남(대전 신기농장 대표), 유영출(단학농장 대표), 차상진(한국 바브록 협력회장) 송진호(충남 부화장 대표), 전동용(연암 축산교장), 나기현(연암 축산교감), 임병규(한국 바브록(주) 전무이사), 김중곤(현대 양계사 주간), 노영한(대한 양계협회 총무부장)씨등 업계 및 관계인사들이 참석하여 충남지부 창립에 따른 발기인회를 결성, 준비위원장에 최민용씨를 선출하고

준비위원으로 나기현, 배선목, 유영출, 나재춘, 오대균씨를 선출하여 4월 3일 대전에서 창립총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정관작성 및 사업계획, 수지예산 등 창립에 따른 모든 준비는 창립위원들에 위임하고 해산했다. 준비 위원장인 최민용씨는 충남이 우리나라 양계의 발생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지부 창설을 발기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있으나 앞으로 충남에도 지부를 결성 양계인의 단합된 힘을 보여 양계업계의 발전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지부가 창설하게 되면 대한양계협회는 경남(부산)지부, 경북지부, 전남지부, 전북지부에 이어 다섯번째의 지부가 결성되게 된다. 현재 양계협회는 지부이외에 동두천 분회, 포천분회 등이 결성되어 있으며, 강원지부의 결성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어 양계협회는 양계인들의 단결하여 업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이날 준비위원회의 경비는 나재춘씨가 부담했다.

## 부화인 친목회 탄생

—양계업체발전을 위해 매월 10,000원씩 각출키로—

지난 2월 25일 을지로 2가 삼일관에서 열린 부화업자 간담회에서 부화인 친목회가 탄생되어 양계업체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이날 모임에는 강금노, 윤경중, 이필용, 주원술, 최민용, 김 상, 민덕기, 차두홍, 배선목, 이제조, 신흥중, 이상운, 이창열, 박도현 씨등 부화업계의 중진들이 다수 참석하여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1인당 10,000원의 회비를 각출 기금을 조성하여 조성된 기금은 양계업체의 발전을 위해

쓰기로 했다. 부화인 친목회에서는 앞으로 회원의 문호를 개방, 부화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조성된 기금은 차두홍, 이필용 씨가 관리, 어느 일정기간동안 적립한 후 필요한 때 양계업체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쓰여질 계획이다. 보다 많은 부화업자들이 이 친목회에 참석, 부화인의 친목과 더불어 업체의 발전을 위해 보다 폭넓은 호응이 있어야겠다.

## 김재춘회장 동남아 시찰

본회 회장이며 축산단체 연합회장으로 있는 김재춘회원이 삼협조합의 김재하 무역부장을 대동하고 지난 3월 21일 약 20일간 동남아 시찰에 올랐다. 삼협(蔘協)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회장은 동남아의 인삼시장의 시찰은 물론 대만의 양계협회 등도 돌아보고 올 예정이다.

### ◇ 월 간 양 계 ◇

1년분 : 2,000원

반년분 : 1,200원

## 왕병아리 및 세미 집중 단속 실시



최근 부화시기를 맞아 전국 미등록 부화장에서 왕병아리 및 세미등 불량추를 부화, 업계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농수산부가 단속에 나섰다. 농수산부는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를 단속기간으로 설정했는데 이번 단속대상은 축산법이전 등록부화장이 재등록을 필하지 않은 부화장, 왕병아리 생산부화장, 종계등록을 하지 않은 부화장 등인데 축산법 시행규칙 26조에 저촉된 사항을 집중단속 적발될 업체는 관계증빙 서류를 첨부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애초 농수산부는 단속기간 중 예비조치로 지도계몽 기간을 설정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유예를 두었으나 이 계몽기간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불법부화를 하여 강력한 단속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양계협회는 각도지부(분회)를 통한 많은 고발을 접수하게 되어 농수산부가 더욱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을 요청, 지난 3월 농수산부 축산과 서기상씨가 충남, 전북일원을 순회하며

불법 부화행위를 단속한바 있는데 경남, 강원, 경북에서도 단속순회반이 좀 더 빠른 시일내에 강력한 단속에 나서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이번 단속반이 불법 부화행위를 적발했을 때는 법에 따른 엄중한 조처가 취해질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정부는 축산시책 전환에 따라 양계수수를 1,700만수로 줄이기로 정책을 세움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세미 및 왕병아리의 단속은 개정된 축산법에 의해 그 어느때 보다도 강력하게 밀고 나갈 방침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 양계업계에서도 이러한 경제성이 없는 병아리는 결국 아까운 '사료'를 낭비하여 그 손실이 크다는 이유에서 강력단속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제10회 산란계 능력검정 9구 출품

1975년 1회 감별사 시험

-28일 대구 감별 학원에서-

대한 양계협회 닭 경제능력검정소에서 실시한 제10회 산란계 출품이 완료되어 지난 3월 10일 김포에 소재한 검정소에 입란이 완료 4월 1일 입추에 들어간다. 이번 출품구는 총 9구로 한협계를 비롯하여 외국수입계인 바브록, 하이섹스와 이스라엘의 야콘, 야파, 한국화이자의 닉-치 등이 미국에서 직접 종란을 공수 출품을 의뢰해 왔다. 이번 출품되는 산란계는 금년 4월 1일부터 1976년 8월 15일까지 총 500일간 검정 1(고에너지 고단백)과 검정 2(중에너지 중단백)으로 나뉘어 검정을 하게 된

다. 대한 양계협회는 이제까지 8회 산란계 검정을 마쳤으며 현재 9회검정이 진행중에 있다.

이번 출품된 계종 및 출품회사는 아래와 같다.

- 한협 122호 2구 한협육종(주)
- 한협 325호 1구 "
- 한협 353호 1구 "
- 바브록 B-300 1구 봉명부화장
- 하이섹스 1구 천호부화장
- 야 콘 1구 이스라엘
- 야 파 1구 "
- 닉-치 1구 한국 화이자(미국 H&N)

대한 양계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제1회 감별사 시험을 지난 3월 28일 대구감별학원에서 실시했다. 시험결과는 5월호에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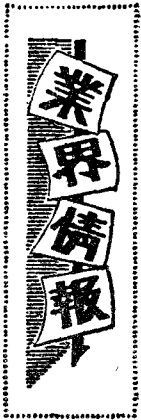
#### ● 양계 경영일지

권당 : 150원

#### ● 월간양계 합본

권당 : 2,000원

## 업 계 동 정



- **이태일씨**(한국비타민 기획부 차장)  
화란을 비롯한 구주 각국의 낙농관계 견학 및 바일엘 본사에서 기술습득차 지난 3월 13일 화란으로 향발. 이태일씨는 3개월간 체류할 예정.
- **정선부박사**(축산시험장 육종담당관)  
일본에 1년간 체류하면서 가축육종 연구.
- **오봉국박사**(서울농대교수)  
삼성문화재단에서 지급하는 연구비를 수령
- **유경호씨**(전사료과장) 농수산부 총무과장을 비롯한 이인규, 이동우, 송찬원씨 등에 대한 영송파티

가 지난 3월 14일 외교구락부에서 관련업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

• **미국 하바드 농장** 국제담당책임자 로다드씨와 극동대리점(일본 노자와구미) 축산부장 이시다, 축산부차장 오꾸무라씨

가 한국 하바드 G.P 농장 개설에 따른 제반문제 협의차 지난 3월 25일 내한.

• **미국 코브농장** 국제담당 책임자 극동담당 책임자 미나가와 씨가 3월 24일 한국 부로일러 업계 시찰자 내한.

### ◆ 인사이동 ◆

- **노용덕씨** : 제일사료 본사에서 서울대리점으로
- **김동환씨** ; 제일사료 서울사무소에서 본사 영업부장으로 승진
- **이길홍씨** : 제일사료 영업부 판매담당으로 입사. 이길홍씨는 전북대 농대 수의학과를 74년도에 졸업하고 제일사료에서 양축가의 애부터 서비스에 노력할 예정.
- **박건영씨** : 인산농원 양계부에서 대성미생물 주입기사로
- **정정치씨** : 대성미생물 판매부로
- **신영균씨** : 청우 실업 (주) 총무부로
- **정지태씨** : 청우 실업 (주) 총무부로

- **육순교씨** : 한일 사료 (주) 상무이사로 승진
- **손문익씨** : 한일 사료 (주) 영업부장으로, 손문익씨는 카아길 병아리 판매부에 근무했었다
- **김시호씨** : 현대양계사 편집부 기자로
- **홍성택씨** : 대한 사료에서 용인 중앙개발 동물원으로

### ◆ 전화번호 ◆

- **대전신기농장** 4) 1306으로 전화번호 변경
- **호모 사료총판인 청우실업(주)**  
 ㉔ 1081 (본사) ㉕ 8131~5,  
 ㉖ 7161~9
- **은성산업**(대표 : 현순구)  
전화 증설  
본사 : 서울 ㉔-3821~5

사료공장 : 육천 434(전용)420  
(겸용)

대전연락소 : 대전 ㉓-2420  
대구 " : 대구 ㉔-0722

### 하이섹스지 6권 발간

한국 유리브리드 협의회에서 발간하는 양계기술전문지인 하이섹스 6권이 발간되었다. 이번 호에는 화란유리브리드 "안셀옵 디하르씨와의 양계산업 전반에 관한 인터뷰, 단성호흡기병은 난각질을 얇게 하며 파란을 증가시킨다.

질병을 증가시키는 24가지 상황, 양계영양메모, 단성호흡기병 C,R,D, 질병의 침투경로를 봉쇄합시다, 부로일러업에 성공하려면 숙련된 관리기술이 필요하다 등 다채로운 기사가 수록되어 양계가의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필요하신 분은 서울 성동구 성내동 50-1천호후화장으로 연락하면 보내드린다고 한다.

### • 정성준씨

(농수산부 자급사료 제장)  
필립핀, 대만 업계시찰후 귀국

### • 이기복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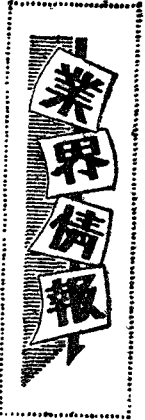
농수산부 중소가축 제장에서 대가축 제장으로

### • 김 현씨

국립종축장 대가축과에서 농수산부 중소가축 제장으로

# 사료 세미나 및 비육우 세미나 개최

—한국 사료협회 및 미국 사료곡물 협회 주최로—



한국 사료협회와 미국 사료곡물협회, 미국 유지협회 및 미국 대두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료세미나 및 비육우 세미나가 3월 17일 교육회관 대강당과 3월 18일 한국 사료협회회의실에서 열렸다. 3월 17일 10시부터 열린 이날 사료세미나에서는 농수산부 축산국장 김영진박사에 축산 시책방향에 이어 한국사료협회장 유윤수씨의 사료수급과 전망과 미국축산사료계의 권위자 “카튼”박사의 곡물가공처리에 관한 강연이 있었는데 카튼박사는 미국 사료업계와 자신이 소속돼 있는 사료회사의 상황을 슬라이드를 곁들여 설명했다. 이날 300여명의 축산관계인들이 참석한 강연에서 카튼 박사는 산업가의 이윤추구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영양향상을 담당한 기업이 축산업이라 지적하면서 한국의 축산업발전의 발전에 놀랐으며 모든 기업의 성공적 실천은 훌륭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법인데 그 아이디어가 충만한 한국의 실정으로 보아 한국 축산업의 장래는 매우

밝다는 코멘트를 아끼지 않았다. 카튼박사는 기업을 통해서 그냥 돈만 벌어 치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영양도를 높이는 산업이 축산업이라며 정부나 민간 사이에 근면하게 일하고 축산울 안하면 안된다는 소신을 갖고 일해 나간다면 한국축산업의 발전은 어느나라보다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대 농대 이용빈교수의 양돈사료에 고에너지 시험보고, 미국 유지협회 “존슨”씨의 미국 양돈업 현황과 전망, 미국 대두협회 “페리”씨의 단백질 사료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18일 사료협회에서 열린 육우 세미나는 자우(仔牛) 번식체계에 대한 카튼박사의 강연으로 2일간의 강습회를 마쳤는데 이번 강습회는 어느때보다 축산인이 많이 참석 관심을 보였다.

## 김수동 감별분과 위원장 향독

—감별 취업경 후진감별사 진로 개척차—

본회 감별분과 위원장인 김수동씨가 지난 3월 12일 오후 2시 S.A.S.기 편으로 김포공항을 출발, 감별 취업길에 올랐다. 김수동씨는 무기한으로 독일에 취업하며 우리나라 감별사의 해외 진출을 개척하여 보다 많은 외화획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국내감별업체로 불경기로 인해 감별사의 수요가 극소수이나 해외 시장에서는 감별사의 수요가 부족한 실정이며 감별사의 해외진출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일본감별회사를 통해

해외 취업에 올랐음으로 감별사가 해외취업을 해도 수입원이 적은 형편이었다. 그러나 해외 진출에 있어 당사국과 직업계약을 체결할 때 감별사의 수입이 향상되어 외화획득의 증진을 기할 수 있게 되므로 정부 당국이 대외공관이나 대사관을 통해 국내 감별사의 배출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아쉽다. 현재 서구를 비롯한 해외시장에서는 일본인 감별사가 많이 취업되어 있는데 정부당국이 대외홍보와 감별사의 자질향상에 더욱 힘써야

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현재 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감별사 중에는 대외신용을 크게 손상시켜 빈축을 사는 일이 간혹 있는데 감별사가 해외에 취업하려면 꾸준한 기술습득과 대외신용을 떨어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감별사 자질향상에 힘을써야 할 것 같다. 국내 감별학원은 감별사의 해외시장을 좀 더 정확히 알고 감별사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며 종전과 같은 과대선진으로 무모하게 감별사를 양성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감별은 기술습득기간도 길뿐 아니라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려면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기술을 배



워야 할 것이다. 김수동씨는 출발에 앞서 업체에 일일이 인사를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월간 양제 지면을 통해 인사를 대신했다.

오후 2시 한협(주) 사무실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신회원 4명의 가입을 승인하는 한편 신입 협력회장에 민덕기(구리부화장 대표)씨를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제등록 사업실시 이후에도 계속 왕병아리, 새미등을 부화하는 부화장을 절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차기 회의는 4월 18일 충남부여에서 열기로 하고 산회했다.

들이 대두, 정확한 통계를 수립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경비는 양돈협회 이사진이 40~50만원의 용역비를 자담하여 조사에 착수하고 있어 4월말경에는 정확한 통계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 한협 협력회장에 민덕기 씨 선출

한협 협력회는 지난 3월 17일

### 한국 바브콧 협력회 월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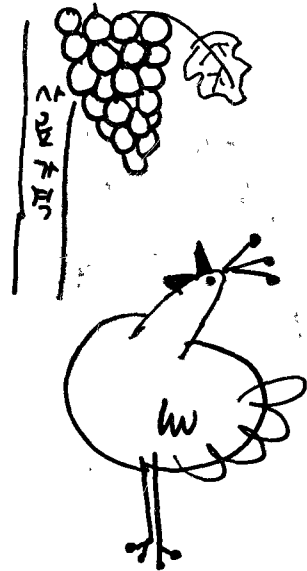
한국바브콧 협력회(회장:차상진)가 지난 3월 20일 오후6시 충남 유성 국제여관 별실에서 전 협력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협력회의를 마친후 임시주주총회가 있었다.

### 한국 축산물 증산 수출 사업회 총회개최

#### 신임회장에 김원태씨 선출

한국 축산물 증산 수출사업회는 지난 3월 7일 안국동에 위치한 사업사무실에서 1975년도 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김원태를 선출했다. 선출된 임원 및 이사진은 아래와 같다.

- |                        |                                 |
|------------------------|---------------------------------|
| 회 장: 김원태(국회의원 신임)      | 이순영(장평축산 " " )                  |
| 부회장: 양성준(봉양산업 대표 (유임)) | 정동근(한국축산 " " )                  |
| 강대봉(양돈업 신임)            | 김학영(양돈업 " " )                   |
| 이 사·김병우(성풍산업유임)        | 감 사: 구본무(무영농원 대표 회원인(실일물산 " " ) |
| 박철용(상진실업 " " )         | 명예회장: 박정근(국제축산, 전 회장)           |
| 오재영(합호축산 " " )         |                                 |
| 김영진(한양통상 " 신임)         |                                 |



### 한국 양돈협회 50두이상 사육자 조사

—협회 이사진 40~50만원 자비들여—

한국 양돈협회는 농수산부가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양돈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협조하여 3월 10일 부터 4월 5일까지 전

국적으로 50두 이상의 양돈사육자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현재 양돈통계의 부정확성으로 정책수립상 많은 문제점

# 사료가격 3월 중순부터 13~15% 2차 인상

—양축가 부담 더욱 늘어나 압박 클 듯—



올들어 배합사료 가격이 13~15% 선에서 다시 인상되었다. 사료업체는 지난 2월 25일부로 환율 인상전에 확보하였던 원료를 모두 소모함에 따라 3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각 공장별로 사료가격을 다시 재 조정 13~15%선에서 재 인상을 단행했다. 따라서 올들어 사료가격은 30%가량이 인상되어 양축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게 되었다. 배합사료가격이 재 인상됨에 따라 양계가가 제란

1개를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는 개당 23원, 부로 일터 1kg을 생산하는데는 420원 가량의 생산비가 소요되어 양축가의 판매가격도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다. 양축가가 생산비의 결감을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경영으로 제반 경비를 줄여야만 할 것이다.

## 酒精 폐기물 사료이용 가능

—내내공장 시설투자 열출로 난색—

주정공장에서 나오는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약간의 공정을 거치면 영양가 높은 사료가 될 수 있는데도 당국의 무관심과 공장측의 이해부족으로 폐기, 오히려 공해요인으로 방치되고 있다한다. 지난 3월 3일 서울공대 화공학과 南宮寔박사는 한국 주정협회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서 국내 10대 주정공장이 폐기물을 사료화한다면 하루 2만 2천 5백마리의 성우(成牛)를 먹일 수 있는 양의 영양사료가 생산될 수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천, 해수, 오염, 부패에 따른 악취, 모기 기타 해충 발생 등 공해요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정공장의 시설규모는 연 60만 드림 정도로 하루 1천 4백드림이며 제조과정중 배출되는 폐기물만도 하루 220여 톤에 달한다고 한다. 고구마를 원료로 했을 때 폐수안에 함유

된 물질은 지방질, 섬유질, 당질, 단백질 등인데 이들 폐기물을 그대로 배출했을 경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높아 공해가 극히 높는데 비해 이를 사료로 처리하면 체중 500kg의 성우 2만 2천 5백마리를 먹일수 있는 칼로리가 산출되는 계산이 된다. 남궁박사는 보고서에서 폐수중에 발효 후 남은 전분, 미발효성당분, 지방분, 단백질 섬유질을 비롯하여 무기질과 효모, 균체 등이 풍부히 함유되어 있으며 탄수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분의 함유율은 더욱 농축되어 있어 기본사료의 첨가제로서 유용성이 높ی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에서는 주정보다 사료생산을 위해 고구마 등을 처리 부산물로 주정을 생산하는 곳도 있다. 국내 주정공장들은 대부분 정화조 형식의 처리장치로 폐기처분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의 시설로는 공해 방지기능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남궁교수가 소개한 폐수의 사료화 과정을 보면 ① 폐수를 농축한 다음 폐탕밀을 넣어 재 농축하는 방법과 ② 폐수에 유용균체를 접종배양, 주정분을 재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하루 1백 30드림의 주정생산능력을 가진 주정공장이 사료화시설을 하는데는 약 6천 8백 50만원이 들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데 국내 공장들은 시설 투자비 열출이 어렵다는 등이 유투 들어 사료대신 공해원을 방출하는 현실을 방관하고 있다.

<조선일보에서>



## 産學協同財團 75년도 학술연구비 지급대상자 발표

— 축산분야 최창해교수 등 5명에 지급키로 —



산학협동재단 (이사장·李活)은 올해 전국 교수들에게 지급키로한 학술연구과제 및 학술연구비 지급대상자 명단을 지난 3월 17일에 발표했다. 산학재단은 올해 전국 76개 대학으로부터 모두 1천 98건의 연구과제를 신청받아 이중 314건의 연구과제를 선정, 총 3억 원을 지급키로 했는데 대상교수는 57개 대학의 4백 39명이다. 이중 축산분야에는 서울산업대학의 최창해교수 등 5명이 지급받게 되었다 아래는 지급대상 교수 및 연구과제이다.

### ■ 경북대학교

· 박준영(수의학과) : 한우의 귀장흡충에 대한 생약의 살충작용에 관한 연구.

### ■ 전북대학교

· 金鍾冕(수의학과) · 튜벨크린 음성 無病美유우의 감별진단에 관한 실험적 연구.

### ■ 제주대학

· 김형균(축산학과) · 사료자원 개발을 위한 해조류 사이테지의 사료적가치에 관한 연구.

### ■ 서울산업대학

· 최창해(축산학과) : 계분의 양돈 사료로서의 영양적 가치와 이용에 관한 연구.

### ■ 고려대학교

· 김영교(축산학과) : 치즈 숙성에 관한 연구.

## 오봉국, 윤익석교수 75년도 과학기술처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서울농대 오봉국 박사와 윤익석 박사가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학기술 조사 연구개발조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총 규모 1억 4천 6백만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 중 농수산분야는 8건인데 이중 축산분야는 오봉국교수의 “계육생산을 위한 부로일러 육종 개발에 관한 연구”로 정부투자 240만원, 한협가금육중(주) 부담 300만원, 총 54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게 되며 윤익석교수는 “林地的 축산물 이용에 관한 연구”도 정부로부터 9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게 되었다.

호화양장에 정가 2,500원으로 되어 있다. 월간 양계에서는 일선 양계인들의 편의를 도모코져 2,000원에 배부하고 있다. 필요하신 분은 월간양계로 2,000원 을 송금하면 된다.

## 닭 경제능력

### 김정희의 개회

대한양계협회 김정희의가 지난 3월 25일 소집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아울러 9회 산란계검정의 중간검토, 제 10회 산란계검정 계획이 중점적으로 토의 되었다.

## 最新家禽要論발간

### 오세정교수 박근식과장

본회 부회장이며 전국대학교 축산대학교수인 오세정씨가 쓴 최신가금요론이 새로 발간되었다. 이번 새로 발간된 지침서는

최근 10년간의 양계산업이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하여 집필되어 일선 양계가나 양계기술을 지도하는 분들의 가장 좋은 참고서가 될것 같다. 특히 질병편은 안양가축위생연구소 박근식과장이 가금질병을 총망라 자세한 설명으로 해설함으로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는다. 600면

# 폐기물로 사료화

<호주>



호주의 퀸즈랜드대학 수의학석사인 피터헨리씨는 시궁창 물에서 가축사료용 단백질을 뽑아내는 데 성공, 이미 실험용 쥐에게 먹여 실험을 끝낸 뒤 곧 돼지를 사용한 제2차 실험에 착수할 예정이다.

2년동안의 연구 끝에 실험에 성공한 헨리씨는 하수도 물을 식용 단백질로 변형시키는데는 「캔디다 이젠스」라는, 보통 이스트를 사용한다. 변형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발효성폐수모물 표면에 피부처럼 이스트가 자라게 한 후 휘발성 지방산을 제거, 세균성 단백을 만들며 이때 이스트를 거두어 50%의 단백질이 함유된 농축조각을 건조해 내면 사료가 된다는 것. 이 속에는 뼈성장에 필요한 탄수화물과

황산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헨리씨의 주장에 의하면 곡물과 혼합하여 닭이나 돼지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어분, 대두박같은 값비싼 농축단백질 원료의 대체물로 가축사료에 적합하리라는 것이다.

또 공동연구자며 수의미생물학 강사인 「알랜프로스트」박사는 헨리씨가 해외연구차 가 있는 동안 이 연구를 다른 각도에서 계속 추진할 것이며 하수처리장에 종사는 「브리스 베인」시(市) 위원회 기술진이 추출작업을 적용시키는 최선의 방법을 얻어내는데 협력하고 있다. —내외경제에서—

## 계란소비 1인 222개

<호주>

1973년의 계란생산량은 2억 8,300개—스으로써 이 가운데 약 20%는 부화용 종란이다. 호주의 인구는 약 1,300만이므로 1973년에는 1인당 계란소비량은 222개였다. 1973년의 가금육 생산량은 약 17만톤으로써 전년보다 3% 증가하였다. 부로일러의 1인당 소비량은 22파운드, 기타 가금육은 2.6파운드로 추정된다. 1973년의 부로일러 초생추는 18%, 채란계 초생추는 5%가 늘었다. 또 七面鳥의 사육도 늘어나고 있다. 호주의 양계는 이제부터가 주목될 것이다. 2개의 대규모 기업이 호주의 양계계(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초생추의 공급은 전국의 45%를 점유하고 있다. 이

기업체는 처리 시설도 운영하고 있으며 유통 부로일러에서는 6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 양계 발전 도상국

<유고>

유고슬라비아의 양계는 아직도 소규모이지만 근래는 규모확대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고는 옥수수의 생산이 많으므로 양계사료의 기반이 있지만 금후 더욱 증산하려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대두박은 부족되므로 이것은 수입(輸入)으로써 대처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되었다. 가금육 생산도 늘어나고 있으며 1973년의 생산량은 15만톤에 이르렀다. 계란 생산은 6.6%가 증가하여 32억개이며, 전업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도매가격은 가격통제하에 있으나 개인의 소규모 농가가 생산한 계란이나 계육은 농촌의 시장에 내놓을 때에는 통제되지 않는다. 이들 소수수(少首數) 농가는 1호당 15~20수정도의 자가양계(自家養鷄)인데 최근 이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1974년 당초의 가금총 수수는 5,300만 수 이었다.

